

광주시-국민의힘 “정책 공조 강화”

姜시장, 국힘 광주시당 직접 찾아 정책간담회 대통령 공약·복합쇼핑몰 유치 적극 협력키로

광주시와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미래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상시적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3일 “국민의힘 광주시당 회의실에서 시장 당직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시정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강기정 광주시장, 문영훈 행정부시장,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주요 간부가 국민의힘 광주시당을 직접 방문해 진행했다.

광주시장이 국민의힘 시장을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정현 광주시당

위원장, 지역구별 당협위원장, 김용임 시의원, 박종철 시장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김정현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지역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입법지원과 국비확보 등 당 차원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달 국민의힘 지도부와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광주시당과 정책간담회를 갖게 됐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광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지역 공약이자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복합 쇼핑몰을 비롯해 인공지능 관련사업, 반도체 특화단지, 미래 모빌리티,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함께 힘을 합쳐 챙겨야 할 현안들이 많다”고 전제하고 “광주 발전을 위해 국민의힘 광주시당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며 초당적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시는 주요 현안으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유치 ▲인공지능 2.0+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추진 ▲상생형지역 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완성 ▲광주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화 ▲영산강·황룡강변 Y벨트 역사이팅 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주요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시와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아시아 문화전당 활성화 ▲전남대학교병원 신축 지원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광주 유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복합 쇼핑몰 유치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점을 확인하고, 민간이 주도하되 기업-시-정부-여당이 성공적인 복합 쇼핑몰 건립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김정현 광주시당위원장과 참석자들은 “광주 발전을 위해 광주시와 적극 소통하겠다”며 “지역 현안 해결과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해 당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광주시당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광주시와 국민의힘 광주시당 정책간담회가 3일 광주시당 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과 김정현 시장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애리 기자

市, 코로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재개 5·18민주화운동교육관에 생활치료센터도 설치

광주시가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라 시 구 상무지구 내 5·18민주화운동교육관에 임시선별검사소와 생활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임시선별검사소는 오는 11일부터 매일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공휴일에도 운영해 시민들이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키트) 양성자, 해외입국자 등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만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도 5·18민주화운동교육관을 예비시설로 지정하고 병상가동률 등 운영 상황을 감안해

전국 확진자가 20만명 이상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50병상 규모로 설치하고 무증상이거나 경증 확진자 중 거주지가 불확실한 해외입국자, 외국인 유학생 등을 입소시켜 치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초 지방비 50% 부담이 검토됐던 코로나19 위중증 병상 운영 예산이 앞으로도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으로 치료하는 위중증 병상 운영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고, 중앙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강기자

“만5세 입학, 학생·학부모·교사 98% 반대”

민주당 강득구 의원 기자회견...정책 철회 촉구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사의 약 98%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국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13만1천7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9%가 이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95.2%였다.

정책 추진 절차가 정당했는지에 대해선 응답자의 9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9.1%로 가장 많았다.

입학 연령 하향 시 2018~2022년생을 25%씩 분할해 정원을 늘려 입학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7.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학부모 및 교원 등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해야 하는냐는 질문에는 94.9%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95.2%였다.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남 동물방역 과학적 대응 나선다

道, ‘사람·동물 건강한 전남 행복시대’ 대책 마련

전남도가 체계적 방역으로 지난 겨울 철 고병원 인플루엔자 발생을 줄이고 구제역 등 청정지역을 유지한 가운데 ‘사람과 동물이 건강한 전남 행복시대’를 비전으로 ‘제2차 동물방역 및 축산물안전 종합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전남도는 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오는 2023년까지 추진하는 ‘제1차 동물방역 및 축산물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체계적인 방역을 선도했다.

1차 종합대책 마련 직후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 처음 발생하는 등 가축방역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농가와 업계에선 갈수록 고령화되는 축산여건을 고려해 스마트 축산과 자동화된 방역시설 등 과학적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가축방역이 어려워 축산을 접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2차 종합대책을 당초 2023년까지 수립할 예정이었으나, 1년 앞당겨 완성했다. 국내외 및 도내 현황을 분석해 과학적 동물방역과 재난형 가축질병 차단에 앞장서기 위한 6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추진 과제 목록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같은 국가 재난 가축질병 최우선 차단방역 ▲과학적 데이터 활용으로 사전 예방형 동물방역 ▲사람과 동물의 건강은 하나(One health)를 목표로 인공통연병 관리 ▲주요 가축전염병 집중 관리 ▲과학적 방역인프라 확충 ▲건강한 먹거리 생산 및 축산물 안전성 향상이다.

추진 과제 별 사업은 10~32개로 총 128개 사업에 1조9천8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39개가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 등 신규사업이고 기존 89개 사업은 확대하거나 계속 추진한다. 특히 재난형 질병 차단과 자동화 방역인프라 확충에 집중한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축산현장에는 과학적이고, 자동화된 방역환경이 구축돼야 한다”며 “축산현장 고령화에 따라 노동력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면서 가축질병 피해를 막는 방역환경을 조성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한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남도는 1차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체계적 방역업무를 추진하면서, 전국 가축방역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지자체로 3회 선정됐다. 지난 겨울철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는 이전 동절기 21건보다 48% 줄어든 11건이 발생, 방역비용을 78% 절감했다. 이는 소독시설(400호), 축사 보온시설(100호) 등 방역시설 자동화 지원 등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김재정기자

▶1면 ‘광주 구의회간 인사...’

한 기초의회 관계자는 “각 구의회 간 인사 교류가 이뤄진다면 남구에 거주하지만 북구로 출근하고 또 이와 반대되는 경우가 있을 때 교류가 가능해져 좋을 것 같다”며 “의회 운영 차원에서도 결원을 비교적 쉽게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수 북구의회 의장은 “구의회 간 인사협약이 체결되면 같은 직급 내에서 이동해 균형 있는 인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원활한 인사 이동을 위해 미리 협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

특화단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반도체 등 산업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으로도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하루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의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관련 인허가 의제 사항이 45~90일 내에 처리되고 도로,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폐기물·폐수처리 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이 지원된다. 신속한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 개선 신청 시 15일 이내 검토해 그 결과를 회신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전략 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관련 학과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또 관련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도 지원한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시령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취업 희망 어르신모집

- 미화,경비,요양보호사,유통,운전직 상시모집
- 만 60세이상 취업희망자
- 노인 취업 무료알선

광주남구시니어클럽
☎ 062-654-6080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임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피 상담▶

호남지사 062-417-4731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메인상권 빌딩급매

- 중심상업지역 역세권 코너 유통인구 엄청
- 대지 810㎡ 9층건물
- 급매68억(보3억1,000월3,600)부가세별도

*** 주차뽕뽕, 월세뽕뽕, 월세는 지정일자에 통장바로 입금됩니다 돈 벌어주는 귀한 빌딩입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내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내주공아파트 옆 동은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컴퓨터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판매
- 임대 ●A/S

T.375-5880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8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